**<논술형 예상 문제- 아래 문제 중에서 2문제 출제됨>**

* **일반계시의 특징과 한계를 서술하고, 특별계시의 특징을 설명하라.**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자연, 역사,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자기-현시를 하신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전체를 뜻한다. 작품이 화가의 존재를 증거하듯, 자연의 아름다움과 복잡성은 전능, 전지, 선한 인격을 가진 창조주의 존재를 암시한다. 역사는 계시의 수단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주관하신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성은 정신적 특징-양심, 종교적 본성, 인간의 이성 등 안에서 신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 계시의 긍정적 기능으로는 질문자가 되게 하는 기능, 연속성의 기능, 복음 수용을 위한 준비 기능, 인간 문화에서 악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반면 한계점으로는 질문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진리와 생명에 대한 정답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죄, 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일반 계씨는 인간 존재의 궁지인 죄, 악,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상의 철학과 종교들이 철학과 수행법으로 접근하지만 여전히 죄, 악, 죽음의 문제는 인류의 핵심 문제라는 점이다.

특별 계시의 중심은 ‘성육신’이다. 성부는 인간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심이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고 성육신한 구원자를 의미한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도우셨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 역사 안에서 ‘선지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계획된 때에 하나님 자신께서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살리셨고 이 모든 특별 계시적 활동을 기록을 보존하셨다.

*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5가지 특징을 비교하며 설명하라.**

칼빈주의는 전적부패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존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신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고 주장한다. 제한 속죄며,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고 불가항력적 은혜인 구원받기로 선택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항거할 수 없이 그 은혜 앞에 나오게 되어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으로 구원에 예정된 자는 천국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고 표현한다.

알미니안 주의는 전적부패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와 믿음이 연결되며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으로 응답할 사람들을 미리 아신다고 주장한다. 만인 속죄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고 가항적 은혜 즉,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부르시지만 자유의지는 은혜에 항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구원상실기능으로 참된 신자도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표현한다.

* **삼위일체의 의미를 설명하되, 삼신론, 양태론, 단일신론과는 어떻게 다른 지를 비교하라.**

삼위 일체란 하나님의 존재구조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 계시다는 것이며 그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가진다. 삼신론은 세 개의 분리된 신들을 주장지만 이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명령에 모순된다. 양태론은 하나님의 본성을 감추는 세가지의 얼굴이라고 하지만 이는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왜곡한다. 마지막으로 단일 신론은 하나님의 삼위를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세 가지 양식으로 본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며 동일한 한 격위라는 것이다.

*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는 예언의 성취됨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구약성경의 메시아 예언 구절들이 있다.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레미아 23장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 학개서 2장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이룬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단답형, 선택형, T/F형 문제-아래 문제를 참고하여 공부하시오. 유사하게 출제되거나 일부 새로운 문제가 추가될 수 있음>**

[신학용어문제] 아래의 보기에서 각 문항의 설명을 읽고 그 설명에 적합한 용어를 골라 쓰시오. (보기는 실제 시험문제에만 나옴. 예상문제엔 없음)

예수는 실제 인간이 아니었으며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하는 이단적 가르침은?

(가현설)

숨겨지고 감춰진 비밀을 열어서 보이거나 진리를 감싸고 있던 베일을 벗겨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말?

(계시)

참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되며, 그들의 삶의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딜 것이며,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참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하는 교리.

(중생)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God-breathed)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용어는?

(하나님의 감동)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교리는?

(중생)

하나님이 실제로 구별된 세 분이 아니고, 단지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다른 ‘양태들’로 나타나는 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220년 이단판정을 받았으며, 사벨리안 주의라고도 불리는 것은?

(양태론적 단일신론)

“men without chests”라는 말을 통해서 영국 공립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은?

(C.S Lewis)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최초로 사용한 근대 철학자의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

서양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범신론자로, natura naturata(자연으로 인해 발생된 자연), natura naturans(지금 자연을 발생시키는 자연)을 주창한 사람은 누구인가?

(스피노자)

청년시절엔 마니교에 빠져서 방황을 하다가, 후에 밀라노에서 회심을 경험한 교부로서 삼위일체, 고백론(참회론), 신의 도성 등의 명저를 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단답형).

일반계시의 세 가지 수단은 무엇인가? 인간본성, 외적 자연, (역사).

인간본성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은 종교성, (이성), 양심

특별계시의 4가지 실체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 성경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세 가지는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자연 안에 담긴 삼위일체의 유비는 ‘물질’, ‘공간’,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성부,성자,성령-의 상호투과, 상호소통, 상호내주를 의미하는 용어는?

(페리코레시스).

구원은 세가지 시제-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된다. 현재 계속 이루어가는 구원과 관련된 교리로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성화 구원)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소재로 복음을 전한 사도? ( )

예수님의 공생애 3대 사역은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이다.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유신론, 무신론, 범신론의 답이 각각 다르다. 다음 라틴어를 해당되는 용어와 연결하라-

무신론 – Ex Deo, 범신론 - Ex Materia, 유신론 - Ex Nihilo

바르트에 의하면, 세 종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살아계신 말씀, (선포된) 말씀

아래의 문제를 읽고 그 내용이 맞으면 T, 틀리면 F를 괄호 안에 쓰시오.

이슬람교의 신관은 ‘군주론적 양태론’이다. (F) – 절대 유일신론

유교, 불교, 도교는 인격을 가진 창조주를 부인한다. (T)

‘복음’이라는 희랍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을 뜻한다. (T)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한다. (T)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한 회의는 A.D. 325년 니케아 공회이다. (F)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A.D. 년 얌니아에서 유대지도자들이 결정했다.(T)

이레니우스는 주후 180년 “이단에 반대하며”라는 글을 썼다. (T)

70인역을 다른 말로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한다. (T)

로마 카톨릭교회가 희랍어 역본인 70인역 안에 있던 외경을 제2의 정경으로 인정한 것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공회 때이다. (T)

아리우스주의: 예수님을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 설명함.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피조물의 으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단사상이다. (T)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주장한 철학자는 샤르트르이다 (T)

일반계시의 내용들은 일단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F)

하나님의 존재구조안에 있는 삼위일체적 구조를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한다. (T)

창조와 인간의 역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삼위일체적 현현에 맞추어진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용어는 경세적 삼위일체이다. (F)

에비온 주의는 유대사상을 계승한 이단적 가르침으로 메시아의 신성을 부인한다 (T)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사상인 마르시온주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한다 (F)

초기 교회사에서 2세기경에 삼위일체란 말을 가장 근접하게 “세 위격, 한 본질”이라고 한 사람은 터툴리안이다. (T)

‘당신이 신을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신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남긴 교부는 어거스틴이다. ( )

마르시온은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F)